

중국의 농촌체제개혁과 농촌사회실태

이 정 규 (교수, 중국 연변대학 사회과학기초부)

1. 첫 머리에

중국에서 지난 세기말부터 시작된 개혁개방은 현재 중국사회에 전례 없던 변화의 봄을 몰고 왔다. 20여 년 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은 그 내용과 방식이 달라지고 있고 그 질도 나날이 향상되고 있다. 아울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¹⁾가 점차 과거의 계획경제 모델을 대체함에 따라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가치관도 따라 변하고 있는 것이 중국의 현실이다. 농촌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본 소론에서 필자는 주로 중국농촌사회의 개혁과 그에 따르는 변화, 현 상태 및 전망에 대해 나름대로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본 소개문이 현재 중국사회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1) 시장경제는 자본주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본질적 구별은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에 있는 것이지 시장경제를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점유제도를 토대로 건립된 것이므로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2. 농촌체제개혁의 필요성과 필연성

20세기 70년대 말 ‘문화대혁명’이라는 정치동란을 겪은 중국 사회는 전 방위적인 사회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런 사회 역경 속에서 중국사람들은 대담히 개혁개방의 길을 택함으로써 사회위기를 극복하고 현대화의 첫 발걸음을 내 디디게 되었다. 괄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개혁은 농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이다. 개혁을 왜 꼭 농촌으로부터 시작해야 했겠는가?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우선 중국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로써 먹는 문제가 으뜸가는 대사이다. 12억을 넘는 인구에다 년 간 순 늘어나는 인구가 1200만 명을 웃도는 중국의 경우, 일 인당 년 간 식량 소비량을 300kg 이라는 낮은 수준으로 잡아도 년 간 식량 수요는 3억6천만 톤을 넘으며 또 3백60만 톤 이상의 식량 증산이 필요한 것이다.

개혁개방 직전 중국사람들이 봉착한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돌출한 문제가 식량난이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서야 무슨 일을 해내겠는가? 그래서 덩소평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민들이 배불리 먹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갈 것이다”²⁾ 라고 말했다.

다음, 중국의 경제구조로 볼 때 농업의 발전은 산업과 제반 국민경제 발전의 토대로 되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 개인의 수요를 초월한 농업생산물은 모든 사외의 토대로 된다고 말한바 있다. 농업은 국민경제의 정상적 운행과 온당한 발전을 담보하는 토대로써 산업발전의 속도와 규모는 대체로 농촌에서 배출되는 경제적 에너지와 시장규모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경제발전은 농업, 경공업, 중공업의 선후 순서를 고려해야 하며 농업을 토대로 하는 방침을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 정치적 수요로부터 볼 때, 농촌이 온(안)정 되어야 나라가 온(안)정 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80% 이상의

2) 『덩소평 문선』 인민출판사, 1983년 판 제361쪽.

인구는 농촌에 있다. 중국사회가 온정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다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농촌사회가 온정 되어 있는 나에 달려 있다. 중국역사를 살펴보면 봉건사회에서 일어났던 때 차례의 사회동란은 모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의 생활난에서 기인 된 것이었다. 개혁직전 중국의 식량사업은 매우 어려웠는 바 계획경제체제하에 식량 공급제도에 의거해 생활하는 도시주민들은 그래도 강냉이 쌀 이나마 일년 사시절 별 근심걱정 없이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적지 않은 농민들은 식량생산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보리고개 넘기기 마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당시 굶주림에 허덕이는 농민수가 2억5천만을 넘었다고 한다. 이것은 사회위기의 적신희였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농촌개혁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던 것이다.

3. 농촌경제개혁과 농촌면모의 새로운 변화

1978년 12월 중국은 “사상을 해방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 해야 한다”는 사상노선을 재확립하고 사업의 중점을 정치적 투쟁으로부터 경제건설에로 옮김으로써 중국 개혁개방의 서막을 열어 놓았다. 이로부터 20여 년 간 중국농촌사회에는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거대한 변혁이 나타났다. 중국의 농촌개혁이란 바로 농촌경제체제개혁으로써 그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의 농촌생산관계에 대한 조절을 통해 농촌생산관계와 생산력의 적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참답게 총화(總和)하고 섭취한 기초 위에서 생산관계에 대한 조절로부터 착수하여 대담히 농촌경제체제를 개혁하였다. 1979년부터 중국정부는 일련의 농촌개혁 정책을 반포하여 기존의 인민공사(人民公社) 제도를 폐지하고 가족단위영농을 집단경제에 도입시켰으며 가족단위영농도급제도를 토대로 하는 이중적 경영체제를 실시함으로써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관계를 활성화시키고 농촌생산력을 해방하였다.

우선, 농촌개혁은 농민들의 노동적극성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마르크스는 물질이익원천을 제기한 바 있다. 생산자의 노동적극성 발휘는 물질이익의 가시화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이는 뜻이다. 인민공사 체제 하에서는 농민의 기본적 생산수단인 토지가 그 소유권은 국가(인민공사)에 있고 경영권은 집단(생산대)³⁾에 있으므로 해서 생산은 당연히 집단적 노동에 의해 진행되었다. 수익은 원칙상 ‘노동에 따라 분배’ 하였었는데 농업노동특성상 그 질적 기준이 명확치 않으므로 대체로 농민 개인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분배되었다. 이런 두리뭉실한 주먹치기 식 수익분배는 생산가운데서 개인 물질적 이익의 가시화 정도가 낮은 탓으로 생겨난 평균주의적 분배로써 필연적으로 농민들의 노동열성에 손상을 주고 나아가 생산력 해방을 저해하게 된다. 사회주의체제라고 해도 노동이 아직까지는 인간 생존의 필수적 수단이고 보면 생산을 함에 있어서 물질이익원천을 떠난 어떤 정치적 선동에 의거해 사람들의 노동열정을 불러일으키려 한다면 그것은 다수 사람들에게는 잘 통하지 않는 허무한 짓임이 분명하다. 이것은 농촌개혁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중국에서는 개혁이전의 사람들의 노동태도를 출공불출력(出工不出力)이라는 말로 개괄적으로 표현한다. 일하러 나왔으며 열심히 일하지 않고 걸동치기로 한다는 뜻이다. 개혁 전 중국농촌의 집단노동현상은 참으로 불만하였다. 걸보기에는 마치 일년 농사를 하루아침에 다 지어낼 듯이 성세호대 하였다. 그러나 그 노동효율은 낮기로 말이 아니었다. 정치선동에 못이겨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출공불출력의 약은 껍을 부렸던 것이다.

1983년도 필자는 연변의 한 시골마을을 답방한 적이 있다. 이 마을은 20여 호 농가에 50여명 노력, 40정보(1정보=1만㎡)가 채 안되는 논과 밭을 갖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 개혁 전

3) 생산대란 인민공사체제하에서의 집단적 영농단위로서 북한의 협동농장 노동조합에 상당함(필자 주).

까지만 해도 온 마을(생산대) 노력이 총동원되어 농사를 지었지만 밭을 묵히는 일이 비일비재였고 해마다 식량난에 부대껴었다고 한다. 그러나 가족단위영농도급제도를 실시한 후 마을 전부의 경작지를 묵히지 않고 잘 다루는데 6호 농가의 노력이면 족하고 또 식량난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다. 아무튼 농촌개혁 후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이 전례 없이 높아지고 노동효율이 대폭 제고 된 것만은 확실하다.

다음, 농촌개혁은 농업에서의 경제기능의 실질적 전환을 실현하였다. 인민공사체제하에서의 농업은 그 생산품종, 생산량, 농산품가격과 수매, 유통 등 면에서 모두 정부의 계획적인 지령에 따라 진행 되었었다. 이런 경제체제는 그 기능 면에서 생산자인 농민의 경영자주권을 거의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시장의 조절기능을 배척함으로써 해서 농산물 수요와 공급간의 모순을 해결 할 수 없다. 정부의 지령성적 계획이 그의 주관성으로 해서 경제법칙을 위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생산력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농촌개혁을 통해 과거의 “알곡생산을 기본 고리로 한다”는 단일한 농업경제구조를 대담히 버리고 농촌산업구조를 조절하였으며 알곡생산을 잘 틀어쥐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다각경영을 발전시키는 정책, 알곡수매와 소비체제를 개혁하고 대다수 농산품가격과 경영을 풀어놓는 정책, 농민의 유통영역 진출을 고무격려 하는 정책 등등 일련의 정책과 조치들을 출범시켜 농촌경제기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민들의 생산적극성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연길시 교외의 경우, 개혁전의 산업구조는 정부지령에 의존한 벼농사 위주의 알곡생산이라는 단일한 생산구조였고 경영범위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혁후의 산업구조는 시장조절과 수익성 원칙에 의한 채소농사와 가축사육업, 농부산물가공업 위주의 경제구조로 전환되었으며 시교의 지리적 우세를 살려 생산과 판매를 자주적으로 조직함으로써 경제적 수익성을 대폭 높이고 시장수요를 충족시켰다.

근 20여 년 간에 거친 중국 농촌개혁의 성과는 참으로 세인

을 놀라게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농촌개혁은 생산력을 해방하여 농산물생산량을 대폭 제고시킴으로써 비단 농민들의 경제수입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12억을 넘는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대화건설에 튼튼한 경제적 토대와 정치적 환경을 마련하였다. 지금 중국의 육류와 수산물 생산량은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농업에서 양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를 넘는다. 그리고 북부의 알곡이 남부어로, 남부의 채소나 과일이 북부어로, 동부의 알곡사료가 서부어로, 서부의 육류가 동부어로 송달되는 전국적인 농산물 대 유통망이 형성되어 서민들의 일상생활에 편리를 주고 있다.

농업이 그닥 발달하지 못한 연변지구만 보더라도 농업생산총액은 개혁전인 1977년의 2억4천여 만원(중국 인민폐)으로부터 개혁실시 몇 년 후인 1982년에 이르러 4억8천여 만원으로 꺾충 뛰어 올랐고 1999년에는 38억 여 원에 도달되었다. 농촌 인구 당 년 간 수입도 개혁전의 백여 원으로부터 1999년의 2천여 원으로 증가되었다.⁴⁾ 농촌개혁은 도시주민들의 식생활도 근본적으로 개변시켰다. 저희 체감적 얘기지만 지난 세기 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연변 도시주민들의 식생활은 강냉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비문화적인 생활이었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식은 점차 입쌀이나 밀가루로 대체되었고 80년대 말부터는 영양분 섭취를 우선하는, 종류가 다양하고 민족성과 지역특성이 다분한 연변 특색의 완전한 음식문화가 형성되었다. 지금 연길시의 농산물시장에는 곡물류로부터 육류, 야채류, 과일류와 해산물에 이르기까지 국제동물보호조직이나 환경보호조직에서 식용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 것이 없으며 만약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계절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사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종류가 구전하고 풍성하다. 이것은 농촌개혁이 가져다 준 혜택이며 개혁성과 그

4) 연변통계국 편, 『연변통계년감 1999』 중국통계출판사, 2000년 판 제 180쪽, 192쪽 참조.

자체인 것이다.

4. 농촌개혁의 문제점 극복과 앞으로의 전망

중국의 농촌개혁은 다만 12억 인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농촌개혁의 근본 목적은 농업현대화를 실현함으로써 농민들을 부유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이다. 20여 년 간에 거친 농촌개혁은 혁혁한 성과를 이루어낸 반면 일부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농촌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개혁을 가일층 심화시켜 개혁가운데서 나타난 모순과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농업생산력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는가에 달려 있다.

중국의 농촌개혁가운데서 나타난 문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찾아 볼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비교적 돌출한 문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라 할 수 있다.

우선, 농민들의 소득 증대 폭이 낮고 농업생산력발전템포가 느린 문제이다. 이것은 농촌개혁가운데서 점차 나타난 문제로서 개혁정책자체의 폐단에 의해 생겨난 문제라 할 수 있다. 농촌개혁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책조치가 바로 토지도급제를 토대로 하는 가족단위 경영책임제이다. 물론 생산과정에서 생산자의 이해관계를 투명하고 분명히 하는 이런 정책적 조치는 농민들의 노동자각성과 생산적극성을 불러일으킨 것만은 확실하다. 개혁초기 농민들은 도급 맡은 토지나 기타 생산수단을 알뜰히 가꾸어 개혁 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소득을 올렸었고 소득증대폭도 도시직장인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눈에 띄게 빨랐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공노동위주인 중국의 농업생산력수준에서 볼 때, 제한된 토지에서 무한한 소득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이다. 토지도급 제도를 실시했다고 해도 과학적 영농이 보편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단 농민들의 체력적 바탕이 한계에 이르면 노동적극성도 최대한 발휘된 셈이고 따라서 소득증대가 침체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1984년부터 실시된

중국의 전 방위적 개혁개방이 날로 심입 되고 성과를 거둠에 따라 도시의 직장인이나 상인들의 소득이 급상승하는데 비해 농민들의 소득은 제한된 생산수단에만 매달려 있으므로해서 가재결을 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농업생산력발전템포가 개혁초기에 비해 뚜렷이 느려진 문제도 주로 토지도급제의 폐단에 의해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농촌산업구조를 최적화하고 제2, 제3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당대 농촌경제발전의 필연적 추세이다. 그런데 제2, 제3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농업으로부터 대량의 노력과 자금, 기술이 분리돼 나와야 하고 또 제2, 제3 산업의 높은 소득은 그 흡인력과 유혹의 자극으로 하여 농촌노력의 외부에로의 대량유동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농민들이 경작지를 묵혀 두거나 걸동치기로 밭을 다루는 등 불양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토지도급제도는 농업의 규모생산과도 모순된다. 현대농업의 주요 특징의 하나가 규모생산이다. 농업의 기계화나 자동화는 규모생산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도급제도에 의한 경영은 그 규모가 너무 작을 뿐만 아니라 토지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규모생산을 조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중국과 같이 인구가 많고 경작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에서 만일 경작지가치를 최대한 발휘시키지 못한다면 식량난과 같은 엄중한 후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토지도급제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폐단과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정책이 바로 농촌토지양도제도이다. 토지도급제도 조건에서는 만일 도급자의 토지사용이 부당하거나 땅을 묵혔을 경우 정책적으로 규정된 농업세금과 기타 비용을 정부에 납부하는 외 벌금까지 내야 한다. 이는 농사일을 포기하고 제2 산업이나 제3 산업에 종사하려는 농민들로 말하면 큰 부담인 것이다. 농촌토지양도제도의 우점은 도급자가 자기의 토지사용권을 협상을 거쳐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2, 제3 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뒤 근심을 덜어 주고 또 농업경영에 능숙한 자가 규모생산을 조직 할 수 있도

록 정책적 환경을 마련해 주는데 있다. 지금 이 정책은 시험단계에 있다.

다음, 지역적 빈부격차가 심하고 농촌산업화와 도시화 수준이 낮은 문제이다. 목전 중국의 농업총생산액 가운데서 60% 좌우는 향진기업(농촌산업)에서 창출해낸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효율이 높은 향진기업은 대체로 동부 연해지역이나 경제발달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서부지역이나 경제미발달지역의 농촌들은 거의 향진기업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그러므로 농촌의 인당 년 간 소득이 만원을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백 원도 안 되는 곳도 있다. 그만큼 지역적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다. 그리하여 중국에서는 국가적으로 빈곤지역을 4개 등급으로 나누어 부동한 정책을 펴고 있다. 서부대개발(西部大開發)이 그 일례로 된다. 연변은 지역적으로 동부에 속해 있지만 국가에서 정한 3류 빈곤지역이기 때문에 서부대개발 정책을 부분적으로 향수 할 수 있다.

농촌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중국에서 농업, 농민,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농업현대화를 실현함에 있어서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 농촌의 도시화 수준은 매우 낮은 바 도시인구의 비율은 근근히 32%로써 세계평균수준인 46%에도 못 미치는 상태다. 농촌의 산업화 수준은 이보다도 더욱 낮은 편이다. 중국은 인구대국이라 농업대국이다. 어떻게 중국실정에 맞는 농촌산업화와 도시화의 길을 개척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농촌개혁을 통해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이며 여기에 중국농촌의 출로가 있는 것이다.

5. 맺는 말

중국의 농촌개혁은 중국 역사상 그 누구도 근본적 해결을 본적이 없는 백성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현대화 건설에 튼튼한 농업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개혁은 지난 세기 40년대에 있었던 토지개혁운동과 같은 위대한 농업혁

명인 것이다. 농촌개혁은 또한 복잡한 계통공정이다. 20여 년에 거친 농촌개혁실천은 중국 현대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찍 예상치 못했던 많은 문제점들도 노출시킴으로써 사회발전을 유력하게 추동하였다. 때문에 중국의 농촌개혁은 한 두 편의 글로써 가히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본 소론이 중국의 농촌개혁과 농촌실상에 대해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설명을 못 주게됨은 당연하다. 다만 이 글이 독자들에게 중국현대농촌사회의 실상에 관한 희미한 윤곽이나마 심어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볼뿐이다.

* 이 글은 중국 연변지역의 우리 동포의 언어로 쓰여져 생소한 단어가 다소 있으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그대로 두었습니다.(편집자 주)